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2월 20일(금)

(윤력 11월 20일)

Пятница

20 декабря 2024 г.

№ 49 (1211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2월 22일은 러시아에서 전력 분야 근로자의 직업일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테크 알라이드' 센터 개장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새로운 건물인 '사할린테크 알라이드' 센터를 열었다. 이 센터에는 현대적 수업, 우수한 교사들과 러시아 대기기업의 실현 과제 등 많은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할린주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사할린 국립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배우고, 발전시키고, 준비하도록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사할린의 어린이 12,000명이 무료 새해 선물을 받게 돼

사할린에 12,5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할린 지역 예산으로 구입한 새해 선물을 무료로 받게 되는 가운데 이미 제과 선물 전달이 시작되었다.

새해 선물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3세부터 12세까지의 자녀 4명 이상)와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가정의 자녀들(3세 -12세), 장애아(18세 이하), 특수군사작전에 참전한 사할린 동원병들의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사할린 수산업계, 사할린주 예산에 50억 루블리 이상의 수익 안겨줘

사할린주 수산업계가 사할린 주 예산에 50억 루블리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었다고 사할린주 수산업부 이완 라드첸코 장관이 전하며, 2024년 한 해 수산업자들이 80억 루블리 이상을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기드로스트로이' 회사 계열이 두각을 나타낸 가운데 이 회사의 자회사인 '쿠릴스키 리마크(쿠릴 어부)'는 수코탄섬과 이투루프섬에 새로운 생선가공공장을 건설했다.

수산업자들은 조업과 생산 가공 확대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스트로브노이' 수산업체에서는 두 척의 조업 어선과 두 척의 냉동운반선을 건조했다고 발표했다. 2차 투자 배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가 선박 건조가 이뤄질 전망이며, 주 정부는 '오스트로브노이' 수산업체가 선박 복구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수생생물자원 채취를 할당하고 있다. 또한 '기드로스트로이' 그룹 회사는 사할린에서 회사의 연안 육지에 시설 확장을 언급하고 있다.

라드첸코 장관은 올해 마지막 달에 사할린의 수산업자들이 약 74만8천 톤의 생선과 해산물을 어획했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수

산업계는 주요 어종들에 대한 어획을 확대했는데 그중 명태잡이로 약 41만2천 톤을 어획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수치이며, 태평양 청어와 정어리 어획량 또한 더욱 놀라운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태평양 청어는 7만 톤, 정어리는 7만8천 톤 이상을 어획했다. 이로써 사할린 수산업체들이 조업한 어획량은 지난해를 훨씬 초과했다.

연안 수산물 가공 생산으로 생선 제품이 증가하면서 12월에는 여기서 45만1500톤 이상의 생선 제품이 생산되었고, 이는 지난해 대비 약 9%가 증가한 수치이며, 생산액은 810억 루블리 이상에 달했다. 사할린주에서는 양식업이 활발하게 운영돼 연어류가 풍성하다. 장관의 말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에 78개의 연어양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처음으로 양식장 설비와 치어 먹이 구입을 위해 이들 수산업체들에 국가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수산업자들에게는 수산업 투자기회 실현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상환했다.

수산업자들은 올해 이미 지역 예산에서 6,600만 루블리 넘게 자금을 받았으며, 전력도 특별히 요금 수치를 이용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 대한적십자사, 영주귀국에 대한 설명회 진행

2024년 선정 대상자 입국절차 발표
2025년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 수는 아직 미정

부모가 사망한 동포 2세, 영주귀국 위한 특별법 개정 요구

지난 18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의 주최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설명회가 두 차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 동포과의 정선호 과장·권오성 사무관·이정주 주무관,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 지원본부 복지사업팀의 정재은 팀장·박윤주 과장·정명주 대리가 지난 17일(화) 사할린을 방문했다.

2024년 지원대상자 위주로 설명회 진행
18일(수) 오전 11시 첫 회의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4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위주로 하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재외동포청 정선호 과장이 설명회를 진행하여 이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한국 정부 관계 부처 대표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올해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수는 270명으로 정해졌으며, 대다수가 사할린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이번에 대면 설명회는 사할린에서만 진행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입국절차, 입국방법, 정착·주거·안정 지원, 국적 취득 및 출입국 관련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2024년 영주귀국 사업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21년부터 시행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설명회 주최 측에서 영주귀국 대상자들은 적십자사의 인솔로 단체 입국 또는 개별 입국 중 하나의 방식을 택일하여 입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체 입국은 2025년 2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항-동해항 선박 탑승해 입국한다고 알렸는데 그 장점은 대한적십자사 인솔하에 가기 때문에 거주지까지 버스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지원사업 진행 측에서는 개별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단체 입국 날짜에 맞춰 한국으로 들어갈 것은 권장했는데 이는 임대주택 단체 계약때문이다. 단체 입국 이후 1주 이내 임대주택 관련 계약을 체결할 예정(2월 7일-14일)이다.

개별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에 대상자는 꼭 적십자사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계약일에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계약 시 해당 세대에 배정된 임대주택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머지 사항들은 지난해와 유사하다.

(2면에 계속)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마무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6개월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은 마무리되고 2025년 2월부터 5개월간 신문구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5개월 구독료는 577,45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재외동포청 ·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에서 영주귀국에 대한 설명회 진행

2024년 선정 대상자 입국절차 발표 2025년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 수는 아직 미정 부모가 사망한 동포 2세, 영주귀국 위한 특별법 개정 요구

(1면의 계속)

설명회 주최 측에서는 입국 후 3년 이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근로능력 저하 하더라도 복지급여 수급이 일체 중단되며, 별도의 구제조치 등은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오전 설명회는 일문일답으로 종료됐다.

2025년 동반가족 지원자 범위 확대

2차 설명회가 오후 3시 동포 250여 명이 한 인문화센터에서 모인 가운데 2025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재외동포청 정선호 관장은 지원사업 내용을 상기시키고, 사업추진 근거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4년 1월에 제정,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따라 '25년부터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즉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는 배우자, 자녀(모든 자녀 가능)와 그 배우자가 정해져 있다. 2020년에 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까지만 해도 동반가족으로 '직계비속' 1명이 정해져 있어서 3세와 4세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 새로 개정된 법에는 직계비속 표현은 없고 자녀로 대체되어 직계비속(1명)은 사할린동포(1세)의 자녀가 사망 등으로 인해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와 함께 영주귀국이 가능하다.

2025년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 수는 아직 미정이다. 주최 측에서는 2025년 신청접수 시 작전 대한적십자사·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가능한 인원을 공지할 예정이다.

지원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 수가 선정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우

선 순위에서 선정, 그룹 내 우선순위는 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기준 고령순이다.

1 순위 -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첫째 자녀와 그 배우자

2 순위 -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둘째 자녀와 그 배우자, 가족의 직계비속이 영주귀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첫째 자녀와 그 배우자

3 순위 -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셋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 1명이 영주귀국한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둘째 자녀와 그 배우자

4 순위 -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녀 간 순위: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로 지정한 자녀 1명과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

- 사할린동포는 접수처 방문 시 별지에 자녀의 동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제출.

-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고령순으로 선정.

또한 회의에서 결격사유도 밝혔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지 않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신청접수는 전처럼 대한적십자사, 재외공관에서 진행하고, 2025년에 신청접수는 3월 3일 시작하고 4월 30일 마감된다. 6월-7월에는 대상자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고, 대상자(안)를 선정한다. 7월-8월에는 대상자 결정(재외동포청), 대상자 통보·입대주

택 수요조사(대한적십자사·재외공관), 9월에는 영주귀국 대상자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11월에는 지원대상자들을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담당자들이 영주귀국의 모든 절차 사업을 실행하는 그 해에 마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최측은 이번 설명회 자료는 2024년 12월 작성되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설명을 마친 후 2025년 지원사업에 관한 일문일답 순서로 들어갔다. 이때 실내에 있던 많은 2세 분들이 부모가 사망한 이들도 영주귀국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재외동포청 정선호 과장은 우선 2025년 영주귀국 관련 질문에 답변한 후 이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흥분한 참석자 중에서는 진행자들의 말을 잘 들지도 않고, 잘 들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자기 요구를 강력하게 내세우더라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분하여 소리치는 참석자들에게 특히 정과장은 부모가 사망한 동포들의 억울한 마음을 잘 이해한다며, 이를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할린동포들이 합동적으로 의견을 모아 한 목소리로 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였다.

한편 사할린방문 시 재외동포청 및 적십자사 대표단은 갈등 문제가 있는 사할린한인사회



계 대표들과 만났다. 이들은 17일(화) 사할린한인연합회 김홍지 회장, 유영희 부회장을 비롯해 총 5명 임원, 18일(수)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박경춘 이산가족회 회장 총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대표단은 사할린한인문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해졌다.

또한 사할린한인연합회 임원과 만남에서는 지난 10월에 재외동포청에 전한 호소문에 대한 답도 받았다고 알려졌다.

부모가 사망한 2세들은 영주귀국 요구 문제를 계속 내세우겠다고 전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만두축제, 종료

12월 1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유리 가가린 시공원에서 일련의 박람회와 활동교실을 위한 행사들이 펼쳐진 가운데 축제팀이 공연 방문객들을 위해 80kg의 만두를 준비했다. 만두축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통적으로 겨울철 가장 맛있는 행사로 새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고 사할린 주정부가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번 만두축제가 9회째 개최된 가운데 축제의 방문객들을 위해 탈인형들과 함께 흥이 넘치는 음악으로 예술단들이 준비한 공연 프로그램을 펼쳤다.

'투르스타트' 조사기관에 따르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만두축제는 2017년 러시아 10대 겨울철 미식축제 안에 들었다. 이번 만두축제가 주민들과 도시 방문객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이들은 무료 만두 시식에 참가하며, 유즈노사할린스크 장인들의 독특한 수공예품도 찾아보고,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축제에 앞서 <만두와 그 친구들> 전통 미식마라톤이 진행돼 유즈노사할린스크 대중 요식업체들이 이에 참가했다. 요식업체들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얇은 만두피로 만든 독특한 조리법의 만두요리를 제공하여 미식마라톤을 진행하는 2주 동안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축제세트 메뉴를 맛보았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ся Фестиваль пельменей

Ярмарочные ряды и площадки для мастер-классов развернулись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им. Ю.А. Гагарина в субботу 14 декабря. Команда фестиваля приготовила для гостей 80 кг пельменей. На самом вкусном событии зимы традиционно дали старт новогодним праздникам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ля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была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на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с творчески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зажигательными композициями, ростовыми куклами. Фестиваль пельменей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же в девятый раз. Еще в 2017 году он вошел в топ-10 лучших зимних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России по версии аналитиче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Турстат". Сегодня событие объединяет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Он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бесплатной дегустации пельменей, знакомятся с уникальным творчеством ремесленников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а также приобретают продукцию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апомним, предшествовал фестивалю традиционны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Пельмень и его друзья". В нем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они представляли уникальные рецепты приготовления блюда из пресного теста. За две недел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марафона фестивальные сетсы продавали почти 3000 человек.

사할린에서 처음 예술적 패션쇼 진행

12월 11일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처음으로 예술적 패션쇼가 개최되었다. 패션쇼는 세르게이 와센킨의 '좋아하는 공간'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예술인의 도시' 아트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서 체호프 책 박물관이 사할린 디자이너협회와 함께 두 개의 세계가 한 공간에 어우러지는 독특한 행사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예술인들의 도시' 갤러리는 단 한 번의 모임에서 사할린의 우수 디자이너들의 제작품 발표를 위한 패션쇼 행사장이 된 가운데 러시아의 민족적 요소와 고전적 우아함, 사할린의 변화무쌍한 날씨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의상들이 선을 보였다. 디자이너들은 사할린 정체성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사할린적 주제를 빠뜨리지 않았다.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оказ мод впервые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11 декабря первый на Сахалин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оказ мод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диум показа разместился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алерее "Город

художников" среди экспонатов перс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Сергея Васенкина "Любимые места".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вместе с дизайнерски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Сахалина организовал уникальное событие, где два мира искусства сливаются в од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го на один вечер "Город художников"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авторских коллекций от лучших дизайнеров Сахалина. Это и национальные русские мотивы, и классическая элегантность, и вдохновленная переменчивой островной погодой коллекция. Не обошлось и без островной тематики — уникального прочт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дизайнеров.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생수 공급하는 위생시설 또 하나 개소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 안에 유일한 광천수가 나오는 위생시설이 또 한 곳 개소되었다.

광천수 공급소는 시공원 남쪽 출입구 부근에 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또 하나의 광천수 공급소가 생겨 여기서 누구나 자유롭게 시네고르스크의 광천수를 쉽게 맛볼 수 있게 되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광천수 공급소에는 난방시설도 갖추어진 편안한 곳으로 일년 내내 이용할 수 있다. 시네고르스크의 광천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물꼭지를 열기만 하면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개의 광천수 꼭지가 있어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광천수 공급소에서는 활동교실과 창작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소한 광천수 공급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3 번째이다. 첫 번째는 2023년 12월 '고르니 워즈두흐' 산악스키 단지에 개소됐고, 두 번째는 2024년 8월에는 '시네고르스크 광천수' 휴양소에 시설을 갖추어 개소한 가운데 앞으로 네 번째는 식물원 구역에 광천수 공급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8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문예콩쿠르 수상작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1위, 김경순, 73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전호의 계속)

제가 12-13살 쯤에는 어머니에게 “우리 집은 언제 일이 끝나나요?... 우리는 일만 하지 아무 데도 놀러 가지 않아요...” 하니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아버지가 일을 많이 하고, 너희들도 잘 도와주니 우리 집은 그래도 다른 집들에 비하면 잘 사는 편이잖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꾸러 오면 돈도 꾸어줄 수 있으니 내 마음도 좋다. 돈이 없다고 돈을 꾸어주지 못하면 나가는 손님 발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조선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 심정을 잘 안다. 할아버지는 집안 살림살이 모두 다 팔아먹고 빨래 방망이마저 가져가 버리고, 아버지 혼자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도저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빈궁 속에 7살 난 너희 오빠를 빼앗기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모르는데... 6.25 전쟁 때 잘못 되거나 않았는지... 너희들만은 내가 절대로 고생은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어머니의 생각은 종종 먼 과거까지 가는 때가 있으셨습니다.

한 60년~85년도에는 우리 집으로 돈을 꾸러 여러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어머니는 꼭 돈을 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말하면 꼭 도움을 주신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 그만큼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며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부모님 때문에 한국에서 너무 가난하게 사셨다 보니 배부르고 등따시게 사는 것에 한이 맺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할린에서는 부지런히 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으니 아주 부지런히 일만 하셨습니다. 잔치나 초상, 생일 외에는 단지 일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와 자기 집에 무슨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이 났다고 가자고 하면 서슴없이 호미자루를 내던지고 따라 가주시고는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슨 큰 일을 하려면 꼭 아버지를 찾아오고는 했습니다. 초상이 나도 잔치를 해도 찾아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너희 부모님은 큰 소리로 싸울 때가 있니?”라고 저에게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 결혼을 한 뒤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께서 하였던 말씀은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라 “어떻게 어머니가 행복한 사람이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시아버지에게 빼앗기고 보지도 못하셔서 날마다 가슴 아파하시고, 여기서 우릴 키우느라 일만 하시고, 여행도 한 번 못 가보시고 좋은 옷도 한 번 못 입어 보시고 본인 생각은 손톱만치도 안하신 분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여행이나 좋은 옷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란다. 다 큰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시고, 내 앞에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자식이 없고, 너희들이 남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부모 속을 썩이지 않으니 이것이 행복이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 옛날 어머니의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다. 이 짧은 시간을 좋은 일만 해도 다 못할 텐데 어찌 나쁜 일을 하라.”하시며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지런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마음 / 박경리

마음이 바로 서면
세상이 다 보인다.
빨아서 풀 먹인 모시 적삼같이
사물이 싱그럽다

마음이 욕망으로 일그러졌을 때
진실은 눈멀고
해와 달이 없는 별판
세상은 캄캄해 질거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든 욕망
무간지옥이 따로 있는가

권세와 명리와 재물을 쫓는 자
세상은 그렇게 피 비린내가 난다

“대한민국에는 <토지>가 있습니다. ‘박경리’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소설 <토지>가 있다고, 종종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의 문학을 물어보면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태석의 희곡 <자전거>도 물론 빼놓지는 않았겠지요. 그 때 시인 분들은 소개하기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서정주, 백석의 시를 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지훈의 <승무>를 떠올려만 봐도 번역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시를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여기거든요. 언어의 조탁성이야 그렇다쳐도 말의 맛을 외국어로 옮긴다는 건, 더욱 한국어의 깊이 깊은 말의 맛은 살리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역시 번역가의 입장에서 너무 힘든 도전이었겠지요. 최근에 일본어로 완역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작 박경리 선생님은 살아생전 <토지>의 일본어 번역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네요. 일본은 어쨌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 불편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을 마음은 없습니다만, 사할린 한인 이주와 관련, 코르샤코프 ‘망향의 언덕’에서의 비극만 보더라도 일본은 지금이라도 사과와 반성, 무엇보다 ‘보상청구소송’에 대한 시간끌기용 발뺌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말로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토지>는 경상도 사투리를 넘어 부박스러운 표현들이 끝내주는데, 이를 어떻게 일본어로 옮겼는지 궁금해지네요. 토지의 집필 기간은 장장 25년. 그것도 모두 원고지로 집필하셨죠. 집필 기간을 떠나 개인적으로 제게 <토지>는 소설 이라기보다 국가적 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이 역시 해석의 차이로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읽은 <토지>는 문학 중의 문학, 그만큼의 문학성의 극치를 띄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글정글한 삶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요즘 제 내내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마침내 ‘미조구치’를 만난 거지요. 지난 해 교토에 여행 다녀온 뒤, <금각사>를 읽기로 마음먹었나 봐요. 아들은 체홉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읽었나 본데, 어려운가 봐요. 체홉(체호브)은 언제든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으니, 저는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 서른 좀 넘어서 다시 읽으면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 거라고, 아는 척만 했지요. 체홉이라면 <벚꽃 동산>을 꼭 읽었으면 하는데, 너무 훌륭한 작품이라 아직 아들 녀석에게 추천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벚꽃 동산>만큼은 서른 넘어 읽어보라고 애걸하고 싶거든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다시 토지로! 저는 요즘 아무래도 <토지>의 김평산이 떠오른다는 말을 건넨다는 게 이렇게 저렇게 예뻐서 왔네요. 굵이 굵이. 김평산은 귀녀의 사주를 받고 결국 최치수를 죽입니다. 그런데 김평산은 끌려가는 마당에 아들 거북이에게 말을 하거든요. 죽는 마당인데, 자신은 억울하다고. 이 모두 모함이라고. 결국 거북이는 함안택인 어머니의 자살 이후, 정말이지 끔찍한 성장, 비뚤어진 채 무간지옥 속에 살게 되거든요. 오직 반목과 복수만이 남은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반성을 잃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박경리 선생님 말 마따나 마음을 바로 세울 줄 알아야 할 것 같은 요즘이라서요. 휴, 이번 주 원고 힘드네요, ㅋ.”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재외동포청, 청소년 대상 사할린동포 이야기 담은 낭독콘서트 개최

12일 고양시 성사중학교 · 11일 인천 남동사할린센터에서 개최

관람 청소년들 "사할린동포들 겪은 역사적 경험과 아픔에 공감" 반응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우리 안에 함께, 사할린 이야기’라는 낭독콘서트를 11일 인천 남동사할린센터, 12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성사중학교에서 두 차례 개최했다.

11일 인천 남동사할린센터 개최된 콘서트에는 국내 첫 국립 다문화학교인 인천 한누리학교 재학생 23명 등 80여명을 초청하였다. 12일 콘서트에는 성사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 100여 명 등이 참석하였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할린동포를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두 콘서트 모두 청소년 소설 ‘검정 치마 마트료시카’(2020년작, 김미승 작가)를 4명의 배우가 낭독하거나 상황에 맞게 실감나게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검정 치마 마트료시카’는 일제강점기 러시아에서 태어난 조선인 소녀 ‘썬라’가 사할린으로 간 아버지를 찾으며 겪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마트료시카는 나무로 만든 러시아의 전통적인 인형 낭독콘서트에서는 ‘썬라’가 러시아에서 한인으로 살아가며 느낀 정체성의 혼란, 사할린에서 조선인들이 겪는 척박한 삶, 광복이 됐는데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할린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의 아픔, 사할린에 조선어학교를 세워 우리말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하는 ‘썬라’와 친구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번 콘서트의 음악은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서 음악감독으로 활약한 김길려 감독이 맡았다.

콘서트를 관람한 학생들은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건너간 온갖 고통을 겪은 사할린동포들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며 “동포들의 역사적 경험과 아픔에 공감해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김미승 작가는 학생들에게 작품을 쓰게 된 동기와 ‘검정 치마 마트료시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기와 고난에 맞



12월 11일 인천 남동사할린센터에서 진행된 낭독콘서트



12월 12일 고양 성사중학교에서 진행된 사할린동포 낭독콘서트.

서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용기 있게 꺼낼 것”을 당부했다.

사할린에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 영주귀국한 동포 중 정문영씨와 권경석 씨도 이번 콘서트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학생들에게 사할린동포로서의 삶과 영주귀국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사할린동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귀국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Губернатор поздравил сахалинскую команду по тхэквондо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е письмо главному тренеру сахалинской сборной по тхэквондо Али Мамедову и его команде за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на чемпионате и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Награжден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открытой тренировки воспитанников спортивных школ,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орядка 100 спортсменов.

Нац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по тхэквондо проходил в Москве с 9 по 11 ноября.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участвовали 19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39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Наши ребята взяли восемь призовых мест, трое прошли в сборную России. Это хороший результат, - доложил губернатору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МФТ Михаил Ан (Ан Сухаги).

Золото соревнований завоевали сахалинский школьник Кирилл Ковалев, а также Вячеслав Ким, выступающий в категории «Ветераны». В числе призеров национ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Владимир И, Иван Плошко, Варвара Алуева, Богдан Лабунский, Денис Ли и Ульяна Голдина.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 осмотрел нов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тренирово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каркасно-тент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зал. С 16 декабря здесь стартовали тренировки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занимающихся тхэквондо и кикбоксингом. С января 2025 года в новом зал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секции по фехтованию и каратэ.

— Помещение просторное, оборудовано тремя раздевалками с душевыми комнатами и тренерской. Спортив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будет доукомплектовано грушами и макиварами для единоборств. Здесь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не только полноценный тренировочный



процесс, но и проводится соревнования. 21 декабря в новом спортзале пройдет аттестация для 60 спортсменов по тхэквондо,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В рамках открытой тренировки губернатор анонсировал программу по развитию спорт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Мы подготовили трехлетню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спорта. Поставили задачу за три года в два раза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бытий в регионе. Мы стремимся закрепить позиц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спортивной столиц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егодня 67% процентов нашего населения занимаются спортом. И мы поощряем это стремление наших земляков – открываем новые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создаем условия для любительского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порта, приглашаем лучших тренеров,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ведет серию встреч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федераций, чтобы обсудить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портивной сферы.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VII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прошел в Корсакове

15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в городе Корсаков состоялся VII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Этот фестиваль,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начался в Аниве и уже посетил Углегорск и Долинск, подошел к своему завершению.



Гостей ждала захватывающ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 сцене выступили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ьль», ансамбли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танцев «Ариран» и «Химан», а также кавер-дэнс команда «Perfect Sense». Артисты из города Корсаков также порадовали публику свои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На фестивале также проходили ма-

стер-классы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Участники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освоить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е искусств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мастеров из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а так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инар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Кореи на мастер-классе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личн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Игоревича Лимаренко.

https://t.me/Korean_Telegraph

Временный поверенный в делах России в США Александр Ким провел в Вашингтоне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рием

11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в Вашингтоне прошел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рием, приуроченный к 25-летию Росси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Его посетил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американцы, сотрудники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дружественных России государств.

«Ровно 25 лет назад, 11 декабря 1999 года, Росси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открылся в Вашингтоне. В течение всех этих лет,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ую полит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и все взлеты и пад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центр оставался местом сосредоточен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 всего, чем заслуженно гордится Россия», - сказал, выступая перед гостями, временный поверенный в делах России в США Александр Ким.

Прием посетили около 200 человек. Среди них был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в частно-

сти, из Вашингтона, штатов Нью-Йорк, Пенсильвания и Иллинойс, американцы, сотрудники посольств стран СНГ, некоторых европейских, а также азиатских, африканских, ближневосточных 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фициально посол РФ в США не назначен.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Александр Вячеславович Ким назначен временным поверенным в делах России в США с октября 2024 года.



<https://t.me/saramkor>

На Сахалине дали разъяснения по программе поддержки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в РК

18 декабря в актовом за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ошли два собрания, посвященные программе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обустройству и обеспечению стабильности жизн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обраний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брание,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до обеда, собрало около 20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попали в список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в 2024 г. и сейчас ожидают выезда на ПМЖ. Как оказалось, групповой выезд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ланируется на 5 февраля 2025 г. на паромном теплоходе рейсом Владивосток-Донхе.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добираться до Р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т.е. индивидуально. Однако сторона, занимающаяся проектом поддержки, предупреждает,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сразу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Корею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писание договоров аренды жилья, после чего будут вручены ключи от нового жилья. И посему, желательно всем, кто ед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стараться прибыть в Корею примерно в те же дни, что и группа. Так как если не попадешь в даты коллективного подписание, придется бегать с документам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А это не совсем просто, особенно, если плохо знаешь язык. Самое главное, нужно успеть подписать договор аренды жилья в течение 6 месяцев, как получил извещение о распределении квартиры.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лишаешься жилья. Кстати, жилье было распределено дней 10 назад.

На собрании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и, какие документы необходимо оформи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что ожидается коллективный медосмотр в больнице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Инчхон), а также о порядке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В конце собран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ветили н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вопросы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После обеда в том же зале состоялось второе собрание, на которое собралось еще больше народа. Более 250 человек, однозначно. На собрании познакомили с программой выезда на ПМЖ в 2025 г. Надо отметить, в 2025 г. она претерпела некоторые изменения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в январе 2024г.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в новой редакции расширено определение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 теперь выехать на ПМЖ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ск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м»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в спецзаконе) могут по желанию все его дети.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если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лений на ПМЖ превысит количество доступных мест,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отбор по приоритетным критерия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реимуществом у тех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подадут заявление впервые. Они могут выехать со своими супругами и детьми с их супругами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с одним ребенком).

Во вторую очередь попадают вторые дети впервые подавших заяв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а также дети тех р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уже выехали на ПМЖ, но к ним по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еще никто не переехал.



В третью очередь могут попасть третьи дети, р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впервые подают заявку на ПМЖ, а также вторые дети уже переехавших родителей, у которых первый ребенок также уже переехал к ним в РК.

В последнюю очередь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отбор тех, кто не подпадает под первые три пункта.

Отметим, что вплоть до 2024 г. согласно Спецзакону в качестве сопровождающего члена семьи на ПМЖ мог выехать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хоть в третьем, хоть в четвертом поколении. Однако с 2025 г. по программе могут выезжать только де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прямые потомки в третьем поколении могут выехать, только если у их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нет детей (умерл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ПМЖ может подлежать корректировке, предупред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нем,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имеют право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по программе поддержки, если их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Что, очень несправедливо, считают не только они сами, но и многи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 чем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чень эмоционально было заявлено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по окончании разъяснит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Во многом согласна с заявлениями выступающих по данной теме, однако, нужно уметь слышать и слушать, делать выводы. Не идти на поводу собственных эмоций. Уметь консолидироваться и вместе собрать воедино вс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проблематике, выбрать самые оптимальные критерии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Кстати, делегация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по отдельности встретила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НКО АСК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ОО (Российско-Океа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где выслушали их комментарии о современном положении дел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СК был также дан официальный ответ на Обращение, переданное Агентству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17 октября 2024 г. (опубликовано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25 октября 2024 г.).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начнёт слушания по импичменту 27 декабря

27 декабр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К начнёт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слушания о законности объя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импичмента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первом заседании суда, состоявшемся 16 декабря. В тот же день Юн Сок Ёлю отправлена копия реш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б объявлении ему импичмента. 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слушаниях присутствие ответчика не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Однако на основных слушаниях,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ублично, его участие является необходимым.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ешил отдать приоритет рассмотрению дела об импичменте, отложив другие дела. У суда есть 180 дн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твердить или отменить реш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Если импичмент будет утверждён, в течение 60 дней после вынесения решен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должны пройти внеочередные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Хан Дон Хун уходит в отставку с поста лидера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16 декабря Хан Дон Хун объявил о своей отставке с поста лидера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из-за внутрипартийных споров, обострившихся после объявления импичмента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ю. 14 декабря 12 депутатов от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импичмент, хотя накануне её парламентская фракци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голосовать против. Сам Хан Дон Хун, который призывает к «упорядоченному» уходу Юн Сок Ёля с долж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в конце концов выразил поддержку импичмента. Выступа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Хан Дон Хун заявил, что он не может ис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и лидера партии «из-за фактического распада её высшего совета», все пять членов которого заявили о своей отставке. До выборов нового лидера партии 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будет исполнять новый глава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Квон Сон Дон.

Бывший лидер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начал отбывать тюремный срок

16 декабря бывший лидер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инноваций Отечество Чо Гук был заключён в Сеульский следственный изолятор, начав отбывать двухлетний срок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окончательно утвердил приговор, вынесенный ему судом низшей инстанции. Чо Гук признан виновным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лужебного положен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его детьми льгот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университет и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 деятельность антикоррупционного органа. Он одновременно лишился депутатского мандат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и права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Обращаясь к журналистам у входа в следственный изолятор, Чо Гук заявил, что его партия должна приложить все возможные усилия, чтобы помешать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поддерживавшей противозаконные действия Юн Сок Ёля, сохранить власть.

У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К семь медалей на турнире по шорт-трек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завоевали семь медалей - две золотые, серебряную и четыре бронзовые - на четвёртом этапе мирового турнира по шорт-треку сезона 2024-2025 годов, состоявшемся в Сеуле 14-15 декабря. Команда в составе Пак Чи Вона, Ким Тхэ Сона, Чхе Мин Чжон и Ким Гиль Ли показала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в смешанной эстафете на дистанции 2000 метров. Ещё одну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завоевала Ким Гиль Ли в забеге на 1000 метров среди женщин. Обладателем серебряной медали стал Пак Чи Вон на дистанции 1500 метров среди мужчин.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у Чхе Мин Чжон на дистанции 1000 метров среди женщин, у Чан Сон У на той же дистанции среди мужчин, в женской командной эстафете на 3000 метров и мужской командной эстафете на 5000 метров. Следующий этап мирового турнира по шорт-треку пройдёт в нидерландском Тилбурге с 7 по 9 февраля будущего года.

Рейтинг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растёт, а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падает

Партию Сила народа поддерживают 25,7%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а 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Тобуро - 52,4%. Таковы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1.001 взрослого жителя страны, проведённого 12-13 декабря агентством Realmeter.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потеряла 0,5%, 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приобрела 4,8% голос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опросом. Разрыв в уровнях поддержки, составляющий 26,7%, самый большой с момента вступления Юн Сок Ёля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Партию инноваций Отечество поддерживают 8,0% респондентов, Партию новых реформ - 2,8%, Прогрессивную партию - 1,1%, а друг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 1,4% опрошенных. 8,6% не определились с ответом или не поддерживают ни одну партию.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веб-сайт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изучени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RKI**

Импичмент с выходом Какие сюрпризы ждут внутреннюю политику Южной Кореи

В субботу, 14 декабря, со второй попытки парлам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объявил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ю импичмент за введени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3-4 декабря. Дальнейшую судьбу лидера страны, а также всю ситуацию в целом, теперь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К, который либо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странит Юна от власти и назначит досрочные выборы, либо вернет ему полномочи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ым выглядит вариант с новыми выборами, где больше всего шансов на успех у лидера оппозиции Ли Чжэ Мёна. Однако все это лишь пока один из возможных путей ближайшего будущего политики Кореи, которое может развиваться совершенно по иному и весьма непредсказуемому сценарию.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14 декабря голосован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парлам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предложение объявить импичмент поддержали 204 депутата, 85 высказались против, 3 воздержались, еще 8 голосов признаны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и. Для одобрения импичмента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не менее 200 голосов или две трети от общего состава парламента.

Изменить ситуацию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ервой попыткой голосования, которая была предпринята неделю назад 7 декабря и провалилась из-за нехватки кворума, помогли перемены в позици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Хотя она в итоге не изменила свою официальную линию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голосовать против импичмента,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не стала бойкотировать само голосование, что дало возможность всем желающим депутатам от партии нарушить ее официальные рекомендации. Таких в итоге набралось, согласно подсчетам, не менее 12 человек. На это повлияли как постепенно раскрывающиеся в ход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скандаль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так и действия самого президента, который в четверг, 12 декабря, в обращении к нации заявил, что действовал правильно, и обвинил в кризис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оппозицию. Юн также нарушил данные ранее им обещания вверить будущее правление парт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у, а самому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срочно уйти в отставку. Это вызвало возмущение не только среди простых корейцев и оппозиции, но и внутр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где стали раздаваться требования изменить подход к вопросу об импичменте.

Как только стали официально известны результаты голосования в парламенте,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был немедленно - хотя пока и временно - отстранен от исполнения своих обязанностей, которые перешли к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у Хан Док Су.

Все должен теперь решить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которому по закону дается до 180 дней, чтобы вынести вердикт, были ли со стороны Юна нарушения закона и настолько ли они серьезны, чтобы снять его с поста. Если и КС поддержит импичмент, то после этого через 60 дней пройдут досрочные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а если отменит, то Юн вернется к исполнению полномочий лидера страны.

Главный вопрос теперь: по какому пути пойдет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ситуации в Южной Кореи? Если рисовать будущую картину, что говорится, очень широкими мазками, то пока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ым выглядит сценарий с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импичмента Юна, досрочными выборами, где наибольшие шансы на победу имеет глава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2022 году он проиграл Юну менее одного процента голосов, а сейчас рейтинг Ли, согласно опросам, около 41 процента. Он с огромным отрывом опережает ближайшего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конкурента - лидера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Хан Дон Хуна с его лишь семью процентами голос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в таком случае будущего Юн Сок Ёля, то с высокой долей вероятности он сможет еще больше упрочить славу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поста, как одной из

самых опасных работ Южной Кореи. Он может пойти по стопам многих своих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после президентства отправлялись за решетку.

Однако, если начать вдаваться в детали, то сценарий развития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РК уже выглядит не таким однозначным. Для начала остается вопрос, поддержит ли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К импичмент. Да,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 более 75 процентов - высказываются в пользу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снятия Юна с поста президента и досрочных выборов, что судьи неизбежно учитывают. Но сейчас в КС РК из полного состава из девяти судей есть лишь шестеро.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поддерживать импичмент должны две трети от полного состава, то есть те же шестер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для импичмента нужна единогласная поддержка всех судей, и лишь один голос "против" может вернуть Юна к власти, аннулировав вотум недоверия. Это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ет и доминирующая в парламенте оппозиция, которая намерена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редложить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кандидатуры еще трех судей КС, чтобы довести состав суда до полного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дстраховаться. Известно,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судей КС имеют либо консервативную, то есть близкую к правящему лагерю, либо центристскую ориентацию.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именно на них и рассчитывал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когда заявил, что намерен отстаивать свою правоту в суде и полон решимости вернуть себе полномочия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Если же КС все-таки подтвердит импичмент, то в течение 60 дней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досрочные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Да, шансы на победу на них выглядят пока предпочтительнее у лидера оппозиции Ли Чжэ Мёна, но у него есть свои проблемы. Так, в отношении него ведется сейчас одновременно пять уголовных дел о коррупци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полномочиями, лжесвидетельстве и прочих обвинениях. Есл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хотя бы по одному из них он получит пусть даже условный тюремный срок, то, согласно корейским законам, он лиши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на выборах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лет.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Ли,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его шансы, может быть просто не допущен к президентским выборам. Отметим, что по одному делу он уже получил условный срок, но обжаловал вердикт в апелляционном суде.

В любом случае, как говорят в Кореи, "судебные риски" весьма велики для Ли Чжэ Мёна, и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варианта, что оппозиции срочно придется искать ему замену. В этом случае неизбежна внутрифракционная борьба с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м исходом. Согласно мнению политологов, шансы представлять партию на досрочных выборах в случае "схода с дистанции" Ли Чжэ Мёна имеют нынешний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Ким Дон Ён, который уже заявил о свои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амбициях, а также спикер парламента У Вон Сик, который снискал больш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за хладнокровие и решительное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введению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Кто еще може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то, чтобы стать следующим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Кореи в случае досрочных выборов? У уже упомянутого лидера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Хан Дон Хуна какие-то шансы есть, но своей поддержкой импичмента он настроил против себя доминирующих в партии "ястреб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уже в понедельник 16 декабря Хан сложит полномочия главы партии. В этой связи открытым остается вопрос, кто же получит номинацию на выборы от правящего лагеря: у Хана конфликт с доминирующей в партии фракцией сторонников президент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партии также хорошо понимают, что выдвигание какого-то ястреба-консерватора в нынешней обстановке с импичментом Юну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почти гарантированное поражение на выборах, потому наверняка лучше будет найти какую-то более умеренную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взглядам фигуру.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Из Хасана в Туманган теперь можно доехать поездом

Приморье, 15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С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на приграничные станции Китая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ожно будет добраться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Это следует из нового графика движения пассажирских поездов, принятого РЖД на период с 2024 по 2027 год.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сообщении выйдет на маршрут поезд №401/402 Гродеково (РФ)—Суйфэньхэ (КНР), отменный в 2020 году после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Также назначен новый поезд №645/646 Хасан (РФ)—Туманган (КНДР). Он будет перевозить пассажи-

ров до возобновления курсирования поезда №651/652 Уссурийск (РФ)—Туманган (КНДР)»,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компании. Поезда Хасан—Туманган будут отправляться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средам и пятницам в 15:30 по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му времени (8:30 мск), время в пути — 17 минут. Расписание поездов Гродеково—Суйфэньхэ пока не обнародован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з Приморья в Китай можно добраться автобусами и авиарейсам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 только регулярными авиарейсами Владивосток—Пхеньян. —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ЖД.

В новые корпуса Студгородка СахалинТеха студентов заселят в 2025 году

Студгородок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три девятиэтажных корпуса. В двух из трех зданий завершены монолитные работы. Сдать общежитие планируют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2025 года. Ход работ на объекте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сет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а, и в будущем году, к первому сентября, мы хотели бы, чтобы студенты заселились. Формально срок у нас до октября, но нужно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заселились к первому сентября. Я скажу, что объект строится очень быстро, это больш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 архитектура хорошая. Это будет знаковый объект, не только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о и для всего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возводится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1500 человек. Это будет масштабный комплекс, занимающий 3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н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трёх девятиэтажных корпусов, объединённых общей стилобатной частью.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жить в двухместных комфортных комнатах.

В первых двух зданиях уже готова кровля, рабочие приступили к внутренним работам по устройству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го водопровода, внутривоздушным сетям, системе вентиляции и электромонтажным работам.

Напомним, на месте бывшего Дома офицеров строится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Его площадь составит более 88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 рассчитан он на 2400 студентов. В состав комплекса войдут учебный корпус, научно-лабораторный блок с технопарком (лаборатории по экономике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новой энергетике,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библиотека, зал собраний на 700 мест, общественно-дело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даже оранжерея, которая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Отметим,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станет комплексным современ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которое обеспечит комфор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на его территории как учащихся, так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удгородка будет оборудована спортивная зона с фитнес-центром, тренажерными залами, раздевалками и душевыми. Так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азместят столовую, кафе и медицинский пун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СахалинТех" планируется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в 2026 году. Возведение нов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ед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Наука и университеты",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ежедневный мониторинг состояния подвалов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тартовал мониторинг состояния подвало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апущен ежедневный контроль по выявлению технических помещений,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проведения оперативных работ.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работе находится один подвал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 Уже наступила зима. Недопустимо, чтобы в подвалах стояла вода, эт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состоянии всего дома. Важно оперативно отработывать все заявки, которые поступают. До конца недели в подвале воды быть не должно,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Как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ежедневно специалисты отслеживают заявки, которые поступают через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ЦУР).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работе находится один подвал в Корсакове. Там произошел засор канализации, из-за чего потребовалось проведение срочных работ.

- По вашему поручению мы ежедневно проводим мониторинг поступающих к нам заявок. Подвал в Корсакове в работе, остальные - в нормальном состоянии, - доложил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обсудили подготовку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к проведению ремонтов дворов и благоустрой-

ству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2025 год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районам необходимо составить проектно-сметн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на основе которой проведут конкурсы среди подрядчиков, а также предусмотрят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 Заканчивается 2024 год, чтобы успеть в срок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мы составили график по подготовке проектно-сме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По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дворов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образованиями было заявлено 213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декабря выполнено 176 проектов. В красной зоне Ноглики, нет ни одного проекта, и ряд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находятся в желтой зоне, - отметила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ЖКХ.

Так, в Ногликах возникли техн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По трем из семи территорий документация будет готова до 25 декабря, еще четыре остаются проблемными. К решению подключи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ЖКХ.

- Потребность в помощи остается по четырем дворам. Компания взялась,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 работы, но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на этих территориях расположе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ммуникаций, требовалась топосъемка, которую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извести, в следствие этого не удалось заключить муниципальные контракты. По трем дворам все будет готово до 25 декабря, - сказал мэр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Сергей Гурьянов.

- Доклад не принят. Ведь этот район собирается в будущем году сделать семь дворов, готовности никакой нет, как он будет делать работу? Разбирайтесь, ответ не принимается, это просто безобразие. Надо сейчас посмотреть по ситуации и помочь новому главе. Люди не должны остаться без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из-за каких-то замочков, - добав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ращаясь к Наталии Куприне.

- Все мэры берут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что до конца года проектно-сме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будет готова, - подчеркнул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Подготовка продолжается и по программам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ФКГС»), «Малые города России». Здесь установлены еще более жесткие сроки выполнения различных этапов,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дет из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контроль осуществля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Ф.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задержки по подготовке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 Поронайске, Курильске, Корсакове, Ногликах и Тымовском.

- В 2025 году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ФКГС»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запланировано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 1 октября вся документация должна быть готова, ряд районов отстает. Держим ситуацию на контроле. Реализация всех проектов должна завершиться до 1 октяб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 подытожил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год 80-летия Победы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Десятки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год 80-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ах и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Одним из важнейших стане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на остров Шумшу.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оисковики со всей России, а также Белорусс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на заседан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беда»,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Следующий год — это год 80-летия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Мы будем отмечать и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ажно сохранять правду о событиях тех лет. Благодаря поисковикам мы увековечиваем подлинную историю. Во времена, когда ее пытаются переписать, это бесценно,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Им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последняя крупная битва войск СССР против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и, поставившая точку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Красная армия героически разгромила превосходящие силы противника, находящиеся в укрепленном районе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 В ходе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18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произошел бой советских десантников на отражение танковой контратаки японцев. Этот

подвиг навсегда вошёл в историю страны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по своему значению и примеру ратной доблести сравним с подвигом 28 героев-панфиловцев, остановивших в ноябре 1941 года танковую колонну немецких фашистов на подступах к Москве, - отмет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Увековечить память о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поручи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 заседании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исполнению поручения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озглавил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ектам Сергей Новиков.

В 2025 году в день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18 августа,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будет открыт музей боевой слав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на историческом месте проведут работы по сохранению образцов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очистят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восстановят окопы и траншеи. Экспонатами также станут артефакты, найденные поисковиками. С 1 июня по 30 августа на Курилах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На Шумшу разместится поисковый лагерь, в котором смогут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порядка 200 человек — активисты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ья, саперы, историки, антропологи, музейные работники, студенческие отряды. Найденные поисковиками останки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с почестями перезахоронят на воинском мемориале.

18 августа на Шумшу состоитс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амятных событий с участие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Клубы 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России» 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спортивному триатлону «Высота 171», включающие три этапа — велосипедный, водный и беговой. Так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лета на Курилах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Дорогами острова Шумшу»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52 километра, включающие 14 исторических точек — поля боя, доты, батареи, аэродром, высоты и другие знаковые места.

К Дню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ю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3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будут приурочены еще две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х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 Холмске повторят события штурма укрепленного Камышового перевала,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 штурм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 В селе Рошино к этой дате откроют музе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 В 2023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музея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Сформирована архитектурная концепция, начаты работы по разработке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нами окончен первый этап создания музея.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по очистке площадки от зеленых насаждений, обустроена парковочная зона и подъездные пути, трибуны для зрителей.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музея будут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должены. К 1 июля 2025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ение второго этапа работ, включающего реконструкцию земляных валов, бойниц, подземных ходов, дзотов,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го рва, а также завершение работ по устройству второй части парковочной зоны.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музея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ся сквер, на его территории установлен доску памяти в честь погибших пограничников,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а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рина Карпукова.

К празднич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приурочат традиционные акции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Георгиевская ленточка», «Сад памяти», «Окна Победы», спектакли и выставки на военную тематику, спортивные турниры.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едут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Одним из крупнейших событ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станет «Зарница 2.0» - уникальная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игра, которая воспитывает в участниках командный дух и взаимовыручку, прививает любовь к своей стране и обучает важным навыкам — от оказания первой помощи до знаний правил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Хлеб вытесняет рис из традиционного меню

Сеул, 15 декабря — ИА РY-СКОР.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бира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новая профессия — «мастер гриля». В сентябре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ошел «конкурс мастеров гриля»,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гриллерам,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шим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были вручены сертификаты. Целью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о превратить приготовление на гриле в ремесло, поставив гриллеров в один ряд с бариста, которые готовят кофе, и сомелье, которые разбираются в вине.

Южнокорейцы все чаще употребляют мясо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го продукта питания, от-

казываясь от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в которой преобладает рис. Рост потребления мяса привел к тому, что приготовление на гриле стало считать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навыком. В 2022 году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южнокореец потреблял 60,6 килограмма мяс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что превышает 56,4 килограмма риса. Это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когда потребление мяса превысило потребление риса: в 2021 году показатели составили 59,8 килограмма мяса и 56,7 килограмма риса. С 2000 года потребление мяса почти удвоилось, в то время как потребление риса сократилось примерно до двух

третьей от прежнего уровня.

Однако более широкий взгляд на ситуацию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 пищевых привычках произошли более тонкие изменения. В то время как потребление риса снизилось, потребление лапши и хлеба выросло, что привело к более разнообразному потреблению углеводов. Согласн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сследования здоровья и питания за 2022 год,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значительно изменились модели ежеднев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энергии. У мужчин доля энергии, получаемой из белков, выросла с 14,9 процента в 2013 году до 16,2 процента в 2022 году, в то время как доля жиров увеличилась с 21,6 процента до 25,7 процента. Потребление углеводов, напротив, снизилось с 63,5 процента до

58,1 процента. Эти изменения указывают на растущую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белка и постепенный отказ от углеводов, хотя эта тенденция менее выражена, чем разница в потреблении мяса и риса. Вероятно, это связано с растуще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лапши и хлеба.

Данные маркетинго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Euromonitor International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заним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потреблению лапши. В 2014 году южнокорейцы потребляли 9,7 килограмма лапши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занимая первое место в мире. В отче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за 2017 год указано немного мен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 7,7 килограмм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без учета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цы также лидируют

по потреблению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в среднем 75,6 порций на человека в год, что намного больше, чем 58,4 порции в Непале,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Statista.

Хлеб, который когда-то считался гарниром, теперь стал основным продуктом питания для многих южнокорейцев.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веденное в 2018 году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ей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 торговле продуктами питания, показало, что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южнокореец съедает от 78 до 92 буханок хлеба в год. По прогнозам Euromonitor International,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обычного хлеба, включая нарезанный хлеб и булочки, достигнет 864,5 миллиарда вон, что на 33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648,4 миллиарда (617,45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в 2018 году.

'러시아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대단원의 막 내려

연해주 아리랑예술단, 라두가 예술단의 내한 및 중국 공연 끝으로 추진위원회, 지난 2월말부터 지자체와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러시아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올 한해 한국을 비롯해 연해주, 하얼빈 등지에서 개최한 기념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추진위원회는 국내·외 재외동포 관련 70개 단체와 8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광주·대구·인천광역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포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2월 말부터 10월까지 전국 고려인·한인 집중 거주 지역에서 시민·한인 등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해외에선 9월 20~24일 연해주 고려인들의 중심도시 우수리스크에서 이주 160주년 기념문화제를 개최했다. 이어 11월 18~22일에는 연해주 아르츰시에서 전시와 공연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코리안 디아스포라 예술전도 진행했다.

지난 12월 8일과 11일에는 연해주 아리랑 예술단(단장 김 발레리아)과 러시아 라두가 예술단이 내한해 전북 원광대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계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이용선, 김용배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채완 160주년 기념사업 공동추진위원장의 축사로 공연단을 환대했고, 예술단은 멋진 공연으로 화답했다.

끝으로 김현동 160주년 기념사업 공동추진위원장의 안내로 12월 14일 중국의 특별초청으로 하얼빈에서 연해주 아리랑 예술단 공연이 한 차례 더 열렸다. 한국과 러시아·중국을 넘나들



연해주 아리랑 예술단이 지난 12월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연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해주 아리랑 예술단이 지난 12월14일 하얼빈에서 공연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며 교류·협력의 새로운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 아리랑 예술단의 공연은 성공적 마무리를 했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한국과 러시아에서 이어온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추진위원회가 올 한해 진행한 다양한 기념행사들은 한국과 유라시아에서 살아온 고려인들의 이주·정착의 역사를 돌아보고 축하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교류·협력을 위한 고려인 동포사회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유라시아의 평화·협력과 세계한인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뜻있는 상생의 한 마당이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운동주 시인에, 日 도시사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명예 문학박사 학위 수여 결정

내년에 운동주 80주기 기념행사도 계획

도시사대 측은 최근 고하라 가쓰히로 총장 주재로 학장단 회의를 열고 운동주 시인에 대한 명예 문학박사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1875년 설립된 이 대학이 고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학 이타가키 류타 사회학부 교수는 "재학 중 체포돼 숨진 윤시인을 대학 측이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이 담긴 특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수여식은 80주기인 내년 2월 16일께 열리며 운동주의 조카인 윤인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내년에 운동주 80주기 기념행사도 열 계획이다.

이 학교에는 운동주 시인의 '서시'를 새긴 시비도 1995년 건립돼 추모객들이 찾고 있다.

운동주는 연희전문학교(연세대 전신)를 졸업한 뒤 도쿄에 있는 릿쿄대에 진학했다가 1942



운동주 시인의 70주기를 앞둔 2015년 2월 14일 일본 교토(京都)시 도시샤(同志社)대 교정에 설치돼 있는 운동주 시인의 시비(詩碑)에 추모객이 헌화하고 고인을 기리는 모습.

년 10월 도시사대 영문과로 편입해 다니던 도중 1943년 조선 독립을 논의하는 유학생 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광복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28세의 나이로 옥사했다.

(재외동포신문)

'K-뷰티·푸드 60개사', 민·관 손잡고 글로벌시장 'GO'

아마존 코리아·코스맥스·한국콜마, 올리브영, 신세계·이마트 등 참여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K-뷰티·푸드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민관 협업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에서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코스맥스·한국콜마, 올리브영, 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함께 'K-뷰티·푸드 우수 중소벤처기업 시상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0개 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전시장도 13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

중기부는 지난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아마존·한국콜마·코스맥스와 협업한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올리브영과 협업한 'K-슈퍼루키 워드 영'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K-뷰티·푸드기업을 육성하는 'K-전략품목 어워즈'도 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협업해 진행했다.

먼저,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는 수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 중 미국 내 K-뷰티를 선도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경진대회로, 수출유망제품 트랙 5개사와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 5개사 등 총 10개사를 선정했다.

'K-슈퍼루키 워드 영'은 글로벌 진출에 도전하는 수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올리브영 매장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고객에게 화장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험형 마케팅을 지원해 뷰티 분야 인디브랜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종 20개사가 선정됐다.

'K-전략품목 어워즈'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뷰티·푸드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발해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뷰티분야 15개사와 푸드분야 15개사 등 총 30개사를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K-슈퍼루키 워드 영, K-전략품목 순으로 시상을 진행했다.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내 수출유망제품 트랙과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에서는 각각 '썬리퀴드네이션'과 '썬레이어스코스메틱', ▲'K-슈퍼루키 워드 영'에서는 '썬코스메토코리아', ▲'K-전략품목 어워즈'의 뷰티·푸드 분야에서는 각각 '썬정샘물 뷰티'와 '썬뉴헤리티지'가 1등 기업으로 선정됐다.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수출 유망제품 트랙에 선정된 썬리퀴드네이션 심건우 대표는 "K-뷰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우리와 같은 수출 초보기업도 글로벌화 흐름에 잘 올라탈 수 있도록 중기부와 아마존이 함께 힘을 모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K-뷰티 기업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에 선정된 썬레이어스코스메틱 김유나 대표는 "신제품 기획을 진행할 때 시장별 마케팅 전략 수립과 제조사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 이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아마존, 코스맥스·콜마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든든하다."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 도전할 수 있어 무척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또한, K-슈퍼루키 워드영에 선정된 코스메토코리아 박다원 대표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K뷰티의 인기 속에서 브랜드에 대한 해외 고객들의 관심도도 높아졌지만, 제품을 선보일 기회가 적었다"라며, "글로벌 K뷰티 팬들의 거점인 올리브영 매장에서 제품을 전시할 기회가 생겨, 글로벌 고객과 해외 바이어들에게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2025년 뷰티코스메틱 수출 유망기업에 주어지는 K-슈퍼루키로 선정된 만큼, 내년에도 좋은 제품과 다양한 마케팅 전개로 전 세계에서 K-뷰티의 메인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 프로그램별로 중기부와 민간 협력기업이 함께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선정기업에게 마케팅 전략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코스맥스·한국콜마는 챌린지 선정기업 중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제조 컨설팅과 함께 시제품·초도물량 우선제조를 지원한다.

올리브영은 K-슈퍼루키 워드 영에 선정된 기업에게 ▲글로벌 진출전략 컨설팅 ▲올리브영 관광형 매장 내 별도 판매공간 구성·입점 ▲올리브영 행사 등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행사 참여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신세계디에프는 K-전략품목 뷰티 분야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신세계면세점 내 팝업스토어 운영 및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마트는 K-전략품목 푸드 분야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매장 내 팝업스토어 운영 및 해외 매장 및 유통망을 연계해 수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3개 프로그램 전체 선정기업에게 민간의 지원에 더해 K-뷰티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인 해외인증·온라인 수출 등 내년도 수출지원사업을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올해 10월까지의 중소기업 화장품 누계 수출액이 55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1년간의 수출액인 53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며,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 7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27년까지 중소벤처기업 화장품 수출 100만\$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푸드분야 중소벤처기업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K-뷰티·푸드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확대는 단순히 해당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출 중소기업 전반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준다."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과 대기업의 제조·마케팅 등 우수한 인프라가 함께 어우러져 글로벌화 효과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еще один бювет с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ой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крылась еще одна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точка — бювет с уникальной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ой. Павильон расположен вблизи южного входа в парк. У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явился еще один пункт, где можно в свободном доступе попробовать воду из Синегорского минерального источни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ювет располагается в комфортном павильоне, с отоплением,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он будет круглый год. Чтобы набрать воды из Синегорского источника, достаточно просто открыть кран. Для гостей будет доступно несколько кранов с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ой. Кроме того, в бювет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ские. Это третий бюв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вый открыли в декабре 2023 года на горнолыжном комплексе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августе 2024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точка появилась в санатории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Еще один планируют обустрои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Ботанического сада.

Сахалин에서 처음으로 튜빙-눈썰매장 '고르니 워즈두흐'에 개장

12월 14일(토)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 하부역에 사할린 튜빙-눈썰매장이 처음 개장되었다.

'와트루쉬카(치즈케이크)' 썰매 트랙은 서쪽 출입구 뒤에 위치해 있으며, 광천수 공급소 오른쪽에 있다.

튜브 눈썰매 대여는 무료이며, 수량은 한정돼 있다. 또한 개인용 튜브 눈썰매를 가지고 와서 탈 수도 있으나 개인용 튜브 눈썰매 이용에 대해서는 관리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튜빙-눈썰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르니 워즈두흐 산악스키단지 매표소에서 스키 패스를 구매해야 한다.

Первый на Сахалине тубинг-парк открыли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В субботу, 14 декабря, на нижней станци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начал работу первый на Сахалине тубинг-парк. Трасса для «ватрушек» расположена за зданием входной группы, справа от бювета.

Тубинги дают в аренду бесплатно, но в ограниченном количестве. Также можно приходиться со своими «ватрушками», но за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не несет. Для посещения тубинг-парка необходимо приобрести ски-пасс в кассе комплекса.

2024년에 사무직 채용 중 가장 높은 근로 임금을 받는 직종 선정

'아워토' 분석가들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 채용자들이 새로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평균 근로 임금을 연구한 가운데 가장 높은 근로 임금을 받는 사무 직종의 순위를 집계했다. 올해 최고 근로 임금을 받는 1위 직종은 엔지니어(기계 기술자)였다. 평균적으로 고용주들은 이러한 전문가들에게 평일 종일 근무로 월평균 12만9천726 루블리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는 2023년보다 18%가 높다.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시 사무 직원들의 월평균 근로 임금 책정은 1년부터 3년까지 업무 경험을 가진 청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산정됐다. 최고 근로 임金的 직업 순위에는 전문성이나, 구직자의 경험과 숙련성에 의해 임금이 다양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소득수준이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그러한 직업인들은 아이티(IT)전문가, 고위직 및 경영직과 또한 성과에 따른 비율을 기반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전문가들 즉, 중개인이나 유통업자, 부동산 및 여행 대행업자들이다.

2위로는 기획관리 직종이었고 2024년 11개월간 이 직종의 평균 구직자들은 월평균 10만6천91루블리의 근로 임금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50%가 더 높은 근로

임금이다. 전문성을 지닌 사무직 중 최고 근로 임금으로 기술직이 3위였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직종의 구직자들은 정규직(평일 종일 근무)으로 월평균 9만2천 682루블리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2023년 같은 시기에 비해 8%가 높다.

Названа самая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ая профессия среди офисных вакансий в 2024 году

Аналитики Авито Работы изучили средние зарплаты, которые работодатели предлагают новым сотрудникам в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ноябрь 2024 года, и составили рейтинг самых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х офисных профессий. В этом году перв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занял инженер. В среднем работодатели готовы платить та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около 129 726 рублей в месяц за 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что на 18% больше, чем в 2023 году.

При определении средних зарплат офисных работников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вакансии для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 опытом работы от одного до трех лет. В рейтинг самых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х позиций не включали специальности, уровень дохода по которым может существенно различ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опыта и навыков соискателя, такие как IT-специалисты, старшие и руководящие сотрудники, а такж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чей доход формируется в основном из процентов от сделок, например брокеры, дистрибьюторы, агенты по недвижимости и туризму.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в рейтинге оказалась профессия менеджера проектов. В течение 11 месяцев 2024 года соискатели на эту должность в среднем могли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106 091 рубль в месяц. Это на 50% больше, чем в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23 года.

Профессия технолога заняла треть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самых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х офис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В 2024 году, в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ноябрь, кандидаты на эту должность могли рассчитывать в среднем на 92 682 рубля в месяц за 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Это на 8% больше, чем в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Е-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